

전남도, 가축 폭염 피해 선제 대응 나서

전남도는 기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포함해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여름철이 지난해에 비해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전남도는 냉방시설·장비 설치 및 스트레스완화제 공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시군·생산자 단체장과 긴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군 예비비 확보, 대상자 선정, 시설·장비 설치 및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총 100억 원 투입

냉방시설·장비 설치·스트레스완화제 공급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조기 지원 등 대책을 설명하고 폭염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축산농가가 신호하는 제품을 신속히 구매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축산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대상과 품목 등을 확대해 지원한다.

폭염 방지 시설·장비는 쿨링페

드, 대형 환풍기, 열차단 페인트, 관

정(집수시설), 대형 냉방기, 스포링 클리, 암개 분무, 소형 풍동기 등을 지원한다.

또 폭염 최고조 기간인 7~8월에는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제를 위해 생균제, 비타민제, 광물질 등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가능한 모든 축종에 꿀고루 지원토록 했다.

전남도는 폭염이 심화될 경우 수

자원 확보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

해 소방차를 비롯한 시군, 지역축협에서 보유 중인 방역차량을 동원해 축사 지붕 물 뿌려주기를 실시하는 등 폭염 현장조치 행동규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축산농기에는 기축 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하도록 지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는 폭염이 심화되며 전에 도시군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6월 말까지 냉방시설과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도 함께 뜻을 모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치매환자 등록관리 업무협약

광주 동구가 14일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 내 유관기관 13개소와 ‘치매환자 등록관리’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정남신경정신과, 해피뷰병원, SKI병원, 소광병원 등 관내병원 4개소와 아가페살바센터 등 9개 요양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는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요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연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동구는 연계 등록된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요양기관과 협약해 △치매치료비지원 △치매어르신 돌봄물품 제공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구, 공동주택 밸코니 태양광 설치 지원

광주 서구가 공동주택 밸코니 태양광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밸코니 태양광은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난간 거치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가 간단하고 월 평균 6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시 공동주택 1가구 당(평균 317W기준) 설치비용 67만원 중, 시비 46만원에 구비 추가 지원금 10만원을 합해 총 5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 규제입증 공무원 책임제로 바꾼다

광주 남구는 규제 개선 건의를 할 경우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4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기업 활동과 연관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과 행정규칙에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자치법규부터 시작해 규제 관련 민원인의 불편 사항 제기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무원 규제입증 책임제로 전환하게 된 까닭은 기업인 및 국민들 사이에서 규제 개선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역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 최우수상

광주 북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북구는 “지난 6월 4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에서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라고 16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4년마다 수립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된다.

이에 북구는 구민 중심, 더불어 잘 사는 건강 북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 및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광산구, 수영대회 대비 생물테러 모의훈련

지난 14일 광주 광산구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주관으로 광주시·육군 503여단 등 11개 기관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주차장에서 안전한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위해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영대회 결승 경기 시작 전 드론을 이용한 탄저테러를 가정해 드론 기투살포 → 112신고 및 관계기관 상황전파 → 긴급출동 → 현장통제 → 노출자 대피 → 독소 디중탕지기트 검사 → 환경재독 → 현장 응급진료 → 테러범 검거 순으로 진행됐다.

임형택 기자

광주·전남서 6·15공동선언 19주년 맞아 통일쌀 모내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영암군농민회와 공동으로 15일 오전 영암군 덕진면 논에서 북에 보낼 통일쌀을 모내기하는 행사를 열었다.

전남 지역 농민들이 6·15남북 공동선언 19주년인 15일 통일을 염원하며 북녘에 보낼 통일쌀을 모내기를 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는 전농 광주·전남연맹·영암군농민회와 공동으로 이

래 이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그려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일쌀 모내기는 통일농업의 씨앗이자 열매가 될 것이다”면서 “모내기한 벼가 통일쌀로 북녘에 전할 때면 북미 간 종전선언이 체결되고 민족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판문

광주·순천·영암서 北에 보낼 통일쌀 모내기

“남북 농업 교류·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염원”

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00년 평양에서 이뤄진 6·15남북 공동선언은 남북 대결 시대를 끝내고 화해·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남측위원회·농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논 2.6ha

에 통일쌀을 모내기하며 남북 농업교류와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특별결의문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준수하며 힘 있게 통일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모내기 행사는 같은날 광주·순천 등지에서도 진행됐다. 오는 18일에는 구례·영광, 20일에는 함평에서 통일쌀 모내기 행사가 열린다.

전남 자연재해 안전지수 열악…대책 시급

김기태 전남도의원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남지역 자연재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 점검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절실했지만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기태 전남도의원은 최근 “행안부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자료 결과 전남은 2016년 9등급에서 2017년 7등으로 2016년 9등급에서 2017년 7등으로 2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은 밀들고 있다”며 “전남에서는 태풍, 호우, 강풍, 며

날 오전 영암군 덕진면 논에서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남측위원회·농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논 2.6ha

에 통일쌀을 모내기하며 남북 농업교류와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특별결의문

점검연,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성

시됐다. 멈춰있던 한반도의 심정이

다시 힘차게 고동치며 새로운 시대,

평화·번영 통일의 대장정이 시작

되고 있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까지는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가 있다”면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실

광주시의회, 북한 세계수영

대회 참가 축구 결의안 발표

광주시의회가 14일 2019광주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북한 선수단이 대회 참가 등록 마감일인 지난 13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광주시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광주는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식에서 끝까지 북한의 자리를 비워둔 채 남북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며 “그 간절한 마음이 올해 7월에는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9년 658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김호삼(660809-1560112)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32, 109동 107호
(월계동, 첨단1차리인아파트)

위 맏 김호삼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6월 17일

공고인 : 이미순, 김기태
주소 :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32, 109동 107호
(월계동, 첨단1차리인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5월 27일
공고기간 : 2019. 6. 17 ~ 2019. 8. 17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9년 765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망자 : 이혜정(611218-2552110)
최후주소 : 나주시 남평면 오계반계길 25-15
위 맏 이혜정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6월 17일

공고인 : 박경희, 박현영.
주소 : 나주시 남평면 동총로 93-5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6월 10일
공고기간 : 2019. 6. 17 ~ 2019. 8. 17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 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석면 해체공사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석면조사
축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 위원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